

## 1960년대 도시빈민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망\*

—〈학사주점〉과 〈초우〉를 중심으로

연윤희\*\*

1. 서론 : 1960년대 도시, 새로운 빈자(貧者)의 출현
2. 1960년대 초, 영화에 재현된 도시빈민과 부(富)
3. <학사주점>과 <초우>: '새로운 가능성'의 실패
4. 결론 : '60년대식' 병적 징후

###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박종호 감독의 영화 〈학사주점〉(1964)과 정진우 감독의 영화 〈초우〉(1966)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는 하위계층 청년들을 살피고자 한다. 〈학사주점〉과 〈초우〉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들의 비극적 결말은 가난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이는 다분히 '1960년대적'이다.

남자주인공들은 빈민촌을 떠도는 삼류대학생으로, 소위 말하는 학력과 경제력, 노동력 등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하위계층 청년이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에 머물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빈민촌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은 상류계층 여성과 결혼을 통해

---

\* 이 글에서 1장과 3장의 일부는 2015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Airlangga University에서 열린 Inter-Asia Cultural Studies Conference 2015 〈Undercurrents: Unearthing Hidden Social and Discursive Practices〉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 『The 1960's Korea's Popular Narrative on 'Youth' Symbol-focused on 'City', 'Love', and 'Success'』를 번역하여 수정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제도권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타인에게 성공한 자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 정책과 함께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출세'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설파했고, 대중들은 그에 동조하며 실현시키고자 했다. 가난이 질곡(桎梏)처럼 옥죄이던 시기, 이들에게 상류 계층의 여성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국민'의 대열에 합류하여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류계층 여성과의 결혼을 택한 것이다.

〈학사주점〉과 〈초우〉의 남자주인공들은 상류계층 여성과의 결혼이 수포로 돌아가자, 폭력과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는 '빈자'와 '낙오자', 즉 결합이 있는 자들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사회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이다. 1960년대 병적 징후로 하위계층 청년들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사주점〉과 〈초우〉는 문제적이다.

(주제어: 1960년대, 도시빈민, 〈학사주점〉, 〈초우〉, 하위계층 청년, 사회적 인정)

## 1. 서론: 1960년대 도시, 새로운 빈자(貧者)의 출현

오늘 조국 해방을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직도 해방을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빈곤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빈곤 속에 도의 퇴폐와 부패가 깃들어, 포악한 공산주의의 온상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빈곤이 있는 곳엔 진실한 평등과 자유를 기대할 수 없고, 참다운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 빈곤의 굴레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 만난을 무릅쓰고 경제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업의 수행이야말로 곧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운동인 동시에 민족중흥을 기약하는 새 역사창조의 길인 것입니다.<sup>1)</sup>

1962년 8월 15일, 제17회 광복절 기념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해방은 포악한 공산주의와 빈곤에서부터 탈피하는 것이라 설파한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대등한 국시(國是)로 빈곤을 내세울 만큼, 가난은 민족의 수치면서 부끄러운 치부와도 같았다.

1960년대 일간지에는 “쌀 도둑, 간장 도둑이라는 음식류와 의류, 사소한 가재도구”를 훔치는 줍도둑에서부터 입고 있는 아이들의 옷을 빼앗는 도둑에 이르기까지, 생활고에 따른 기상천외한 도둑들이 들끓고 있었다.<sup>2)</sup> 가난은 자살과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었고, 아내를 창가에 파는 등 엽기적인 사건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sup>3)</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내세운 ‘발전 이데올로기’는 “빈곤이 보편화되어 있던 1960년대 경제

- 
- 1) 대통령비서실, 『제17회 광복절 기념사』,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大韓公論社, 1976, 276쪽.
  - 2) “해방 후 최고 월 3,900건 꼴”, “변두리 경찰서 수사계장의 말을 빌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줍도둑이 발생하는데 쌀, 도둑, 간장도둑이라는 음식류와 의류, 사소한 가재도구가 제일 많아 웃어넘길 수 없을 정도” 『대사령 그 후(2) 들끓는 도둑』, 『경향신문』, 1964.1.22.; “11명의 소년절도단을 검거하여 긴급 구속”, “10회 이상 절도를 상습적으로 해오던 절도단으로 원효로 일대에서 주로 옷가지 구두 등 값가 3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왔다” 『꼬마 절도단 검거』, 『경향신문』, 1963.12.3.; “변두리 지역을 무대로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의류 라디오 취사도구 등을 절취해가고”, 『주민들 큰피해 줍도둑 들끓어』, 『매일경제』, 1968.7.16.;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어린이옷을 벗기는 도둑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일은 아마 한국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 탄식이 절로”, 『어린이 옷 벗기는 괴한을 잡자』, 『경향신문』, 1964.11.12.
  - 3) 『생활고의 가장 활북』, 『경향신문』, 1963.2.7.; “생활고로 가정불화가 잦은 것을 비판해오던 끝에 젓먹이를 집에 두고 친정으로 간 것에 분개하여 생후 10개월 된 딸을 동작동 국군묘지 근방 산골짜기에 버렸으며 다음날 다시 찾아가 먹지 못해 목숨이 위급한 딸을 생매장”, 『딸을 생매장』, 『경향신문』, 1963.7.22.; “친정집에 쌀을 얻으려”간 사이 “시어머니와 어린 4남매가 싸늘한 시체”, “경찰검시결과 음독자살”, 『일가족 5명 시모 4자녀 생활고 집단자살』, 『경향신문』, 1965.1.30.; “생활고 끝에 설날인 지난 1일 아내를 포주 손씨에게 선금 5천원을 받고 창녀생활을 시켜왔는데, 김씨가 도둑으로 아내 김여인을 찾아가 함께 음독한 것”, 『아내를 창녀로 생활고 비판』, 『동아일보』, 1967.1.7.

상황에서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념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조국근대화’ 혹은 ‘경제발전’ 등, 각종의 구호를 통하여 나타난 국가의 정책 목표들은 커다란 반대를 받지 않았다.”<sup>4)</sup> 가난으로부터 발생된 범죄가 난무하던 시기, 국민들은 가난을 탈피할 수단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중요치 않았다. 국민들은 “빈곤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창한 박정희의 발언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한편으로는 그가 그것을 실현해 주길 염원했다. 이에 동조하듯, 가난을 하루 속히 탈피하기 위해 가장은 물론 주부와 그들의 자녀까지 일터로 향했다. 노동하는 손이야말로 아름다운 손으로 부각되었고, 국민들은 노력만으로 부(副)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기대했다. 이 같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 박상호 감독의 영화 <또순이>(1963)이다. KBS라디오 연속극 <행복의 탄생>의 인기로,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또순이>가 탄생되었다. 관객들은 가난을 딛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노력형 인물인 여주인공 ‘또순이’의 성공에 호감을 표했고,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영화 <또순이> 또한 흥행에 성공한다.<sup>5)</sup>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잡지에서도 일반인들의 ‘고진감래식’ ‘성공/출세’에 관한 미담이 대중잡지에 소개된다.<sup>6)</sup> 가난한 국가를 부유

4) 신광영에 따르면, 1960년대 ‘발전 이데올로기’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또는 발전으로 ‘모든’ 국민들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광영, 『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98쪽.

5) 1963년 상반기에 개봉한 한국영화에 대한 평가한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흥행했던 사극영화는 한물가고 현대물의 인기였다고 진단한다. 이만희감독의 <돌아오지 않은 해병>은 20만 3천 명, 신상옥 감독의 <로맨스그레이>는 12만 7백 명, 박상호 감독의 <또순이> 11만 2천 명으로, 현대물 중 세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절반이 표절영화 - 상반기의 방화계』, 『경향신문』, 1963.7.6.

6) 『명동상가를 주름잡는 여인들』, 『명랑』 1965.1.; 『서울의 백만장자』, 『화장품왕 서성환』,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 『명랑』 1965.2.; 『불처럼 인생과 싸워 성공한 사람들』, 『명랑』 1965.3.; 『패스 두 대가 팔십대가 되기까지』, 『명랑』 1965.10.; 1968년 9월 22일에 창간한 대중주간지 『선데이서울』은 11월 24일부터 『예비재벌』이라는 제목

한 나라로 만들어야한다는 대통령 담화로부터 발현된 ‘성공/출세’ 열풍은 1960년대 내내 전국을 휘감았다.

1960년대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사회였다. 악셀 호네프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신분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명예의 정도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단지 집단주의로만 규정되었지만, 전통적 가치 위계구조가 차츰 해체됨에 따라 속성의 차이를 규정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진언한다.<sup>7)</sup>

그러나 또순이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기회로 삼는 자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낙오되는 자들이 존재했다. 바로 박종호 감독의 〈학사주점〉(1964)과 정진우 감독의 〈초우〉(1966)의 남자주인공들이다. 〈또순이〉가 노동의 가치를 내세우며 ‘성공/출세’를 피력했던 것과 달리, 〈학사주점〉과 〈초우〉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들은 학력, 경제력, 노동력 등 가진 것이 없는 무능력한 청년이다. 이들은 도시를 유랑하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도시를 붙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복구과정에서 서울은 교육에서부터 전기와 수도, 신문·라디오, 전화·전차·버스 등 각종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본이 집중되면서 제 1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sup>8)</sup>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도시 중심적인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정책”으로 서울에는 다양한 직업이 생겼고, 돈을 벌기 위해 “대규모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sup>9)</sup>

1965년 4월부터 『명랑』에 연재된 이상희의 만화 〈곰단이 상경기〉는

하에 일반인들의 성공담을 기사화한다.

7) 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42쪽.

8) 장규식, 『거대 도시 '서울공화국'의 명암』, 『역사비평』 65호, 역사비평사, 2003, 82-83쪽.

9) 박길성,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백산서당, 1999, 14-15쪽.

당시 상경자의 정착 과정을 담고 있다. ‘곱단’은 상경하자마자 서울 아가씨들의 파마머리와 뽀족구두에 홀려 친구 점순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잃어버린다. 설상가상으로 건달들에게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다. 쪽지에 지갑까지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곱단이를 딱히 여긴 한 아주머니는 곱단이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는데, 이 아주머니 역시 건달들과 한패인 술집 포주였다. 첫 회에서 암시하듯, ‘곱단’의 상경기는 순탄치 않다.<sup>10)</sup> 1960년대 ‘무작정 상경’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만큼, 서울은 각지의 상경자로 넘쳐 났다. ‘곱단’이처럼 친구의 주소만을 들고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자로 매일 아침마다 서울 역사(驛舍)의 ‘역사(歷史)’는 새롭게 쓰였다.<sup>11)</sup>

급격한 인구 이동은 다양한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한복을 입은 ‘곱단’의 옷차림처럼, 서울에서 낯선 차림의 상경자는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결국, 서울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들도 종종 발생했다.<sup>12)</sup> 일간지마다 이들이 연루된 범죄로 지면이

10)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명랑』은 〈곱단이 상경기〉와 함께, 상경한 이들이 도시생활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만화화한 오원석의 〈향토만화시리즈〉, 상경한 자취생의 일상을 그린 이흥우의 〈자취생 번데기〉를 연재한다. 이는 상경자들의 시선에 비친 도시, 농촌과 도시의 괴리, 자취생들의 생활고 등 당대 사회를 반영한 것이다.

11) 1962년부터 상경자에 대한 보도가 연일 끊이지 않고 기사화되는데, 서울역 안내소에 찾아와 일자리를 찾는 자가 많았고 대부분이 계획 없이 무작정 상경한 사람들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역 안내소에 의하면 하루 4,5명꼴은 안내소에 들러 딱한 사정을 하소연한다. 요새엔 그 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역 안내소를 거치지 않는 수까지 헤아리면 서울로 오는 시골처녀들은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봄바람 상경』, 『경향신문』, 1962.3.30.; “서울에 올라오는 시골처녀들 중에는 친구 편지 한 장을 받고 그대로 올라와 며칠씩 친구 집에 묵어 있다가 할 수 없이 서울역안내소를 찾아들어 식모살이라도 시켜달라고 애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며 여자이외에 알려지지 않는 않으나 남자들도 많은 숫자에 달하리라는 말이다.” 『서울로 모여드는 시골처녀 덮어놓고 좋다는 소문만을 듣고』, 『경향신문』, 1962.3.12.

12) “3개월 전에 상경, 취직 차 상경했으나 취직은 안되고”, 『취직 차 상경한 청년 한강인도교서 투신』, 『동아일보』, 1962.5.28.; “시골에서 식모살이를 하러온 부인의 돈을 속

채워졌지만, 각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소설의 이름처럼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서울은 만원’이 된다.<sup>13)</sup>

“고정된 일자리라는 경직된 원칙이 유지되던 농촌과 달리, 도시는 불안하고 일시적이라 해도 매우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sup>14)</sup> 그러나 상경자 대다수는 제조업이나 일용직 근로직에 종사하는 등 직업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 여자의 경우, 식모나 버스안내원, 공장에 취직하거나, 일부는 접대부나 창녀로 빠지기도 했다. 남자의 경우도 공장 근로자 또는 구두닦이, 신문팔이 등 단순 노동직에 종사했다. 브로니슬라프 게레멕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은 물질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는 성공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동을 하더라도 곧 사회적 주변인으로 밀려난다고 전언한다.<sup>15)</sup> 1960년대 상경자에게도 이러한 공식은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울은 태생적 가난을 벗고 ‘부(副)’가 보장된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비춰졌다.

빈곤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서울에 입성했다면, 대학생들은 입신출세를 꿈꾸며 도시에 진입했다. 이들 또한 1960년대 도시빈민의 구성원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우후죽순 대학이 설립되면서, 국가공인의 ‘학력’은 전통사회의 ‘신분’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능력주의에

여 빼앗은 사기한 현종문(26)과 같이 결탁한 공범 택시 운전사 등 2명을 구속, 「택시 운전사와 짜고 시골 여인 현금사취」, 『경향신문』, 1962.8.15.

13) 박길성은 1960년대 인구이동의 특징을 “대도시로의 이동”이라 강조한다. 1961년~66년 동안 도시로 진입한 108만 8천 명 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다른 도시로부터 이주했고, 1966~70년 사이의 250만 명 전입 인구 중에서 70만 명 정도가 다른 도시로부터 이주했다. 박길성, 『1960년대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도시화』,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백산서당, 1999, 41쪽.

14)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빈곤의 역사』, 이성재 역, 길, 2010, 142쪽.

15) 브로니슬라프 게레멕, 『빈곤의 역사』, 이성재 역, 길, 2010, 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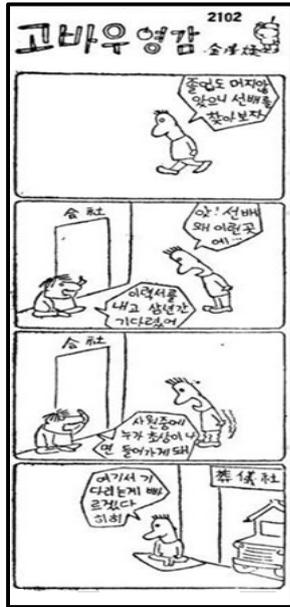


그림 1. <고바우영감>, 『동아일보』, (1961.1.16.)

중에 누가 초상이 나면 들어가게 돼.”라며, 졸업하고 3년 동안 취업할 회사 앞에서 대기 중이라 한다.(그림 1) 이는 당시 취업난을 ‘고바우영감’ 식으로 풍자한 것이다.

이청준의 소설 『굴레』(1966)는 당시 대학생들의 고충을 짐작하게 한다. ‘나는 한 일간지의 견습기자 채용에 1천여 명이 모여든 것을 보고 “엑스트라가 많은 사극영화의 한 장면”에 빗대어 비유한다.<sup>16)</sup> 이렇듯, 대학졸업자 수는 급증하지만, 사회에서 이들이 설 자리는 충분치 않았다. 더욱이 기업조차 일류대학출신 졸업자를 선호하게 되면서 그 밖의

기초한 자격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sup>16)</sup> 김승옥의 소설 『환상수첩』(1962)에서 ‘정우’가 전형적인 예로, 빈농의 자식들은 입신출세를 목표로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에 대한 열망은 근대사회에서 지위 획득 혹은 사회이동의 열망의 표현으로서, 기존 계급질서나 지배질서에 대한 피지배자의 ‘적응’의 한 방식”이었다.<sup>17)</sup>

저학력 상경자가 그러한 것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도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1961년 1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고바우영감>은 당시 대학생들의 실상을 담고 있다. 한 대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먼저 졸업한 선배를 찾아간다. 선배는 “사원

16) 김동춘, 『한국의 근대성과 '과잉 교육열』,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138쪽.  
 17) 김동춘, 『한국의 근대성과 '과잉 교육열』,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135쪽.  
 18) 이청준, 『굴레』,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1, 143쪽.

대학졸업자들은 취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자본화가 도래하면서 태생적 신분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력이 출세의 중요한 기준”<sup>19)</sup> 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위계층이라 할지라도 노력만으로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1960년대 도시빈민이 그러하듯, <학사주점>과 <초우>에 등장하는 하위계층 청년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에 머물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빈민촌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은 죽쇄처럼 따라 붙는 가난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들은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제도적 질서에 정당하게 참여하지 못한, 상호주관적 기대가 훼손된 자들이다.<sup>20)</sup> 이들은 상류계층 여성과 결혼을 통해 다른 이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공/출세’를 염원한다. 신분상승이야말로 가난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공/출세’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갖고 도시를 유랑하는 남자주인공들의 행보는 영화적 상상력이 아닌, 당대 도시빈민이 처한 문제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종호 감독의 영화<학사주점>과 정진우 감독의 영화 <초우>를 중심으로, 하위계층 청년들의 사회적 인정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21)</sup>

19)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적 출세 욕망』,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259쪽.

20) 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53-254쪽.

21) 노지승은 1960년대 청춘영화를 분석하면서 <학사주점>과 <초우>를 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두 영화의 남자주인공은 사회적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이 계급의 문제라 판단하고 일종의 출구로서 상류계층 여성과 만남을 시도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시도가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하위 계층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을 드러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하위계층 청년들이 상류계층 여성을 통해 사회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당대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회적 주체로 내몰고 있는지 등, 세상에 토로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노지승, 『대학생과 건달, 김승옥 소설과 청춘 영화에 나타난 1960년대 청년 표상』, 『한국현대문

## 2. 1960년대 초, 영화에 재현된 도시빈민과 부(富)

1960년대 영화에서 돈은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돈은 단란한 가정에 균열을 일으키는 요소로 다루어졌다. 한형모 감독의 <돼지꿈>(1961)에서 학수는 주택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을 계획으로, 재미교포 흥이 제안한 밀수품 판매에 손을 대지만, 사기꾼이었던 흥에게 속아 재산을 모두 잃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아들까지 잃게 되면서 학수는 자신의 헛된 욕망을 힐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봉래 감독의 <삼등과장>(1961)에서 구소장은 송전무의 불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는다. 그러나 이 돈 봉투는 구소장의 단란한 가정의 불화로 작용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 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하고 가정의 평화를 되찾는다. 이처럼, 1960년대 초반 제작된 영화에서는 돈보다는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당대 감정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개봉한 강대진 감독의 <박서방>(1960)에서 박서방은 해방촌에서 미장이 일로 자식 셋을 키운 가장이다. 전후 탈향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방촌은 빈민의 아비투스<sup>1)</sup>를 상징한다. 박서방의 직업이 아궁이를 고치는 천한 직업이라는 것, 옷섭을 늘 풀거나 더러운 손과 발 등, 박서방이 하층민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킨다. 이 영화의 흥미로운 대목은 ‘양주 에피소드’에 있다. 이 에피소드는 당시 하층민의 감정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서방은 국장 떡의 아궁이를 고치러 갔다가 안주인이 건넨 양주를 처음 맛본다. 그는 친구 황서방에게 “이름도 성도 모를 양주” 맛이 메스꺼웠다면서, “양주 마시는 사람들은 곱창이 달리 생겼나봐”라고 말한다. 황서방은 “양주라는 건 말씀이 코큰 사람이나 마시는 술”이며, “우리네는 마실 술이 못돼 오래 못살아요. 우

<sup>1)</sup> 학연구』 22집, 한국현대문화회, 2007.

린 그저 들끓는 막걸리가 보신이지”라고 답한다. 이처럼, 1960년대 초반 영화에서는 돈의 과한 욕심이 가족의 파멸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류계층은 양주로 하층민은 막걸리’로 정의내리는, 이 영화는 가난을 원망하거나 부를 욕심내지 않는 것을 서민의 미덕처럼 처리한다.

전우형은 1960년대 초반 영화 안에서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이며, 또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거나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 분석했고,<sup>22)</sup> 한영현 역시 “출세의 욕망이 온갖 부정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성실한 가장으로서의 역할 혹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행복’의 조건”이었다고 진단한다.<sup>23)</sup>

1960년대 초반 배우 김승호를 위시한 가족드라마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영화에서조차도 젊은 남녀들은 돈보다는 자신의 분수에 맞는 생활 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의 결혼을 택한다. 김수용 감독의 <구봉서의 벼락부자>(1961)에서 하숙집에서 근근이 궁핍한 생활을 버텨내는 맹순진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베이컨을 구해준 은혜로 200억 원이라는 유산을 상속받는다. 베이컨의 유언대로 1년 동안 맹순진은 자신을 위해 즐기는 것에 상속 받은 돈을 모두 써야한다. 그러나 돈을 쓰는 것에 지친 맹순진은 하숙집 딸 인숙과의 농촌생활을 상상하며 낙향을 결심한다.

<구봉서의 벼락부자>의 결말에서는 엉뚱한 추격전이 펼쳐진다. 돈과 사람들을 피해 기차를 탄 순진을, 베이컨 부인과 동네 사람들이 뒤쫓는다. 그들은 맹순진의 낙향을 막고자 한다. 코미디영화가 구현하듯, 마지

22) 전우형, 『1960년 한국영화의 가난 재현의 기술과 정치학: 영화 <마부>의 코미디와 해피엔딩, 그리고 가난의 판타지』, 『동악어문학』 61집, 동악어문학회, 2013, 118쪽.

23) 한영현, 『1960년대 초 혁명과 역사적 전환기 사회적 실존의 문제-한국 영화에 재현된 서민의 애환과 세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4권,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2, 244쪽.

막 엔딩을 웃음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순진의 귀향은 문제적이다. 영화 초반, 내레이션으로 처리된 월급쟁이의 설움과 하숙비를 제때 내지 못해 주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순진이다. 궁핍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상속된 돈을 버리고 노동한 만큼 결실을 맺는 농촌으로 귀향했다는 것, 더욱이 사장 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비슷한 하숙집 딸과 농촌 생활을 꿈꾼다는 것, 이 같은 순진의 행동과 결심은 슬랩스틱 코미디요소를 가미해 과장된 액션과 웃음과 섞어 버림으로써, 도시빈민이지만 분수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궁핍하지만 가난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전홍직 감독의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길〉(1962)은 백만장자를 꼬여내 백만장자의 아내가 되려는 세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들은 고급저택을 빌리며 백만장자가 모이는 파티에 참석하는 등 신분상승을 위해 영똥한 계획을 세운다. 장 네그레스토의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1953)을 패러디한 이 영화는 왜 백만장자와 결혼해야하는지, 그 뚜렷한 목적이 주인공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허영과 방종한 젊은 여성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 될 뿐이다. 돈 때문에 서른 살이나 많은 중년의 남자와 결혼을 감행하면서까지 백만장자의 아내를 꿈꾸지만, 결국 세 여성 모두 젊은 청년들과 맺어진다. 이 영화에서도 돈보다는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놓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다.

전우형이 지적하듯, “혁명의 한 주체였던 도시의 가난한 하층민들이 모두 행복을 찾아가는 서사를 통해 위안을 얻는 도시의 문화적 현상으로부터 그들이 혁명의 현장과 사람들을 새롭게 분할하고 통치하는 문화적 전략을 전유했을 가능성”<sup>24)</sup>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1960년대 초

24) 전우형, 『1960년 한국영화의 가난 재현의 기술과 정치학 : 영화 〈마부〉의 코미디와

반, “〈마부〉의 서울거리에서는 어떤 경계도 없이 마차와 자동차가 함께 운행되고 떡을 파는 행상인과 극장에 가는 관람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듯,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 전통과 근대의 중첩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근대화되어 가고 있는 서울의 이미지들은 전통을 벗어나 근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영화의 서사적 욕망과 맞물려” 있었다.<sup>25)</sup> 즉, 전통적 도시와 근대화된 도시의 혼종적인 서울의 모습에서 말해주듯, 대중들은 변화된 풍토에 따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지만, ‘부’에 있어서는 전통사회에서 작동했던 도덕적·윤리적인 감각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상적 배우자는 돈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배우자,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사람을 우선시 했던 대중들의 보수적인 정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자본화된 도시를 배경으로 한 〈학사주점〉과 〈초우〉의 남자주인공들은 이전 영화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행보와는 다르다. 다음 장에서는 신분상승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길 원했던 그들의 행보에 주목하고자 한다.

### 3. 〈학사주점〉과 〈초우〉: ‘새로운 가능성’의 실패

한국사회에서 ‘성공/출세’의 척도를 부(富)로 환산하기 시작했던 것은 1960년대부터다.<sup>26)</sup> 연구자들 사이에서 1960년대를 “30년 동안 한국사회

해피엔딩, 그리고 가난의 판타지], 『동악어문학』 61집, 동악어문학회, 2013, 118쪽.  
25) 박현선, 『밀실에서 거리로?: 1960년대 한국영화의 공간과 여성』, 『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149쪽.

26) 이 글에서 논하는 ‘성공/출세’는 사회적 지위, 신망과 위신, 경제력을 뜻한다. 황병주는 ‘출세’의 개념을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에 따라 변화한 용어라 피력한다. 조선시

를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시킨 출발점이요 계기”라 진단하듯,<sup>27)</sup> 1960년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토가 주조되었다. 1960년대 산업화·자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돈/부에 따라 ‘성공/출세’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학사주점>과 <초우>에 등장하는 하위계층 청년들의 ‘성공/출세’에 대한 열망은 박정희 정권 이후 ‘성공/출세’의 변화에서 따른 것이다.

1960년대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면서 가문은 재력으로 대체되었고, 개인은 부에 따라 신망과 위신을 갖게 된다.<sup>28)</sup> 약셀 호네트에 따르면, 전통사회의 “신분적 생활방식과 결합되어 있던 ‘명예’의 범주들은 개인적 영역”으로 바뀌고, “명예 개념이 사회의 공공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리는 차츰 ‘신망’이나 ‘위신’ 범주들이 대신”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가치부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집단적 속성이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이라고 진언한다.<sup>29)</sup>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적 명예 개념은 차츰 사회적 위신 개념으로 바뀌어 갔다.<sup>30)</sup> <학사주점>과 <초우>의 남자주인공들은 부를 획득하면 사회적 신망과 위신

대의 출세는 과거 급제와 관직진출이라는 제한된 범주로, 주로 과거를 치를 수 있는 계층인 양반층에 집중되었다. 반면, 근대사회는 경제가 독립적 영역으로 특권화되면서 경제적 실력이 출세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근대 이후의 출세란 원칙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사회의 출세는 만인의 욕망이라 강조한다.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적 출세 욕망』,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259쪽.

27)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302쪽; 김영찬은 1960년대를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날 한국사회 근대성의 지배적인 특징이 조금씩 주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적 근대의 기점 그러한 근대화 시작으로 인한 불안과 기대, 동요와 순응이 미묘하게 뒤얽힌 복합적인 의식구조가 복류(伏流)하는 불확실한 미결정의 시기라 분석한 바 있다.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256쪽.

28) 약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43쪽.

29) 약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43-245쪽.

30) 약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42쪽.

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학사주점〉을 살펴보면, 경일은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와 어린 여동생, 판잣집이 전부다. 경일이 제대하자마자, 학사주점에 모인 친구들은 ‘유망한 사업’을 제안한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갑부집 딸 하나 골라잡는 것이 출세하는 길”이라며, 한국 3대 갑부인 정시호의 딸 정수미의 사진을 건넨다. 이들에게 ‘유망한 사업’이란 경일과 수미의 결혼을 통해 정시호 회사의 중역자리를 하나씩 꿰차는 것이었다. 경일의 친구는 경일에게 수미를 엘리베이터 삼아 판잣집을 벗어나 출세할 것을 권한다. 그는 당장 무너질 것 같은 판잣집마저도 철거 직전에 놓이자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초우〉의 철수는 삼류대학 출신의 자동차 정비공이다. 그는 우연히 고급 레인코트를 입은 영희를 불한당들 사이에서 구하고, 집에 바래다 준다. 철수는 프랑스 대사관 김대근의 집에 사는 영희를 대사관의 딸로 착각한다. 이후 그들은 만남을 지속하는데, 철수는 자신을 극동공업의 아들이라 속이고는 손님들의 고급세단 차를 바꿔가며 영희의 마음을 뺏는다. 영희 또한 식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좋아하는 교양 있는 부잣집 외동딸 행세를 한다. 철수는 영희와의 결혼으로 김대근의 사위라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경일과 철수는 대학생이지만, 이들의 일상은 학업과는 거리가 멀다. 극빈자인 이들은 대학생이지만 가난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삼류대학생인 이들은 가난을 극복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

1950년대부터 “의무교육제도의 본격화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생이 급증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서열화가 뚜렷”해졌다.<sup>31)</sup> “전통사회에서

3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

출사(出仕)가 갖는 입신양명의 윤리는 현대에 와서 ‘입신’의 철학만이 남고 ‘출세’가 갖는 도덕적·윤리적 요소는 사라지고 세속적인 의미만<sup>32)</sup>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일류학교를 나왔다는 “간판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출세’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기호’였다고 볼 수 있다.”<sup>33)</sup> “1954년부터 ‘삼성물산’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급속하게 일반화된 기업의 ‘공개채용제도’의 도입은 “이미 1950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고등고시제도와 결합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군대-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목표로 하는 근대적인 욕망의 체계를 비로소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이처럼, 학력이 “부(富)나 정치권력보다 더 큰 도덕적 위엄을 지녔”<sup>35)</sup>던 때, 삼류대학생인 경일과 철수는 애초부터 취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자들

산서당, 1999, 253쪽.

32) 김동춘, 『한국의 근대성과 ‘과잉교육열’』,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163쪽.

33) 김동춘, 『한국의 근대성과 ‘과잉교육열’』,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150쪽.

34) 강인철은 도시의 소가족들이 주도했던 교육열과 관련하여, 1954년부터 ‘삼성물산’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급속하게 일반화된 기업의 ‘공개채용제도’가 중요한 지점에 놓인다고 강조한다. 삼성의 공채이후 화학공업의 선두주자 중 하나였던 ‘락희(樂喜)화학’이 1957년 4월 처음으로 대졸 사원 7명을 공채했고, 같은 계열로 1958년 10월 설립된 금성사에서 같은 해 12월 고졸 및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한 것을 비롯하여, 경성방직도 1950년대 후반부터 공채를 실시하는 등 공채제도는 1950년대 후반부터 당시 대기업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어 갔다. 당시 민간부문에서는 은행과 극히 일부의 대기업만이 공채를 실시했기 때문에 취업문은 엄청나게 좁았고, 이 때문에 당시 대학 4학년생들은 취업 공부에만 총력을 기울이던 실정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255쪽.

35) 구해근에 따르면, “전통적 계급체제(양반 대 상민)에 기초한 사회적 위계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직업적 위계의 신분질서는 보호해졌지만, 학력에 기초한 사회적 위계는 변하지 않고 실제로 더 강화된 체 유지되었다. 신분상승을 위한 거의 모든 경쟁이 교육에 의존하게 됐고, 신분적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분하락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모두 학력을 신분평가의 주된 기준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93쪽.

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상류계층 여성과의 결혼은 그동안 꿈꾸지 못했던 제도권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인간과 그가 바라는 것을 사이에 일종의 매개로서 둘 사이의 관계를 수월하게 해주며, 돈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보다 더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sup>36)</sup> 〈학사주점〉과 〈초우〉에 등장하는 하위계층 청년들이 상류계층 여성이 가진 재력은 자신들의 ‘성공/출세’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하위계층 청년들이 ‘성공/출세’를 위해 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타자에 대한 권리 인정에 대한 갈망이다.<sup>37)</sup> 경일과 철수가 사회적 인정에 집착하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초우〉에서 정비소 사장은 철수를 하대하고 철수 또한 그에게서 인간적 대우를 기대하지 않는다. 〈학사주점〉의 경일 또한 학사주점 안에 모여 있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과 소통할 뿐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한다. 정비소 사장처럼 수미 역시 하위계층인 경일의 삶에 호기심을 가지고 경일을 잠시 지켜보았을 뿐, 경일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만의 독특한 능력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이다.<sup>38)</sup>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빈민촌을 떠도는 삼류대학생들이 자신만의 능력을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일례로, 장일호 감독의 〈총각김치〉(1964)에서 인범은 건축기사이다. 인범이

36)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27쪽.

37) 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15쪽.

38) 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42쪽.

일하는 회사의 사장은 그를 ‘과학자’라 칭하고 신입한다. 전쟁고아출신 입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사라는 인범의 독특한 능력은 재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우월성을 인정받게 한다. 인범이 가진 능력으로부터 발현된 신망과 위신은 “개인적 업적과 능력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의 척도”인 셈이다.<sup>39)</sup>

경일과 철수는 부자가 되어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제도적 질서에 정당하게 참여하고, 자신들에게 유보되어 있었던 권리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정도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인정받고자 한다.<sup>40)</sup> 이것이야말로 타인과 다른 우월성을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계급구조의 재구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계급/계층 상승에 대한 경쟁은 계급구도의 단절이 없었던 사회보다 치열”해지기 시작했다.<sup>41)</sup> 이때, 가난을 면하고 ‘출세’하는 것은 모두의 이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위한 무자비한 경쟁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sup>42)</sup>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학력 또한 갖추지 못한 하위계층 청년들은 상류계층 여성을 통해 벼락출세를 꿈꾼다. 이들에게 상류계층 여성은 ‘성공/출세’를 앞당겨줄 ‘엘리베이터’였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벼락출세가 “매력적인 것은 속도”에 있다.<sup>43)</sup> 또한 벼락출세는 “하나의 지위에 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제”이다.<sup>44)</sup> 이들에게 여성을 통한 벼락출세는

39)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43쪽.

40)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54쪽.

41) 이재혁, 『한국전쟁과 자본주의 정신』, 『아시아문화』 16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348쪽.

42) 신형기, 『개발의 시대』, 『변화와 운명』, 평민사, 1997, 240쪽.

43)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8, 245쪽.

44)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8, 243쪽.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남들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획득하는 것보다 같다.

〈학사수점〉과 〈초우〉에 등장하는 무능력한 하위계층 청년들의 행보는 순탄치 않다. 두 영화 모두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학사수점〉의 경일은 수미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상류계층인 수미에게 하위계층 경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장난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경일은 수미에게 농락당한 것을 알게 되자 자살을 택한다. 그가 자살한 고층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장은 그가 이루고 싶었던 ‘성공/출세’를 상징하면서, 하위계층인 경일의 위치를 재확인시켜주는 장소이다.

“1950년대의 판잣집과 흡사한 불량주택이 계속 발생하여 1961년에 4만 1천 호”에 이르렀다.<sup>45)</sup> “서울 도심부 내의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던 무허가 주택들은 도시미관의 증진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목적 하에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철거되었다.”<sup>46)</sup> 경일과 같은 빈자들은 부자들의 위생적·안정적 생활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내주고 또 다른 변두리에서 판잣집을 지어야 했다. 경일에게 철거는 주거지를 단순하지 않다. 그에게 철거는 인간으로 동등한 권리와 인정이 없는 상태,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경일은 “우리만 밑에서 살 수 없다.”, “조금만 오르면 끈덕지게 붙어 다니는 일체의 가난과 굴욕을 면할 수 있다”고 울먹거리며 공사 중인 고층 건물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른다. 그는 고층건물의 옥상에서 “난 부자가 되고 싶었어. 난 행복해지고 싶었다. 난 유명해지고 싶었던 말이야.”라고 내뱉으며 뛰어내린다. 출세의 엘리베이터로 삼았던 수미에 대

45) 이기석, 『20세기 서울의 도시성장』, 김광중 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65쪽.

46) 손세관, 『서울의 인구형성과 주민의 자기정체성』, 김광중 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269쪽.

한 분노가 고층건물을 상징하는 기득권자를 향한 분노로 전이되어 표출된 것이다. 경일은 빈민촌을 떠돌며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기 보단, 사회적 모욕과 굴욕의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당한 자이다.<sup>47)</sup>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하위계층 청년인 경일은 권리박탈감은 “도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상호작용 상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느낌에 있다. 사회적으로 타당한 권리요구들이 각 개인에게 유보된다는 것은, 도덕적 판단능력이 있는 주체로 인정받으려는 상호주관적 기대가 훼손된다는 것”이다.<sup>48)</sup>

경일이 자살하기 전, 영화는 수미와 경일의 일상을 통해 이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임시한 바 있다. 락큰롤 음악에 트위스트를 추는 경일과 친구들과 독주회를 앞두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수미의 모습은 경일과 수미와의 계급 차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이들은 조합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수미가 향유하는 문화는 하위계층들이 접근할 수 없다는 문화적 차별과 무시가 깔려 있다.

〈초우〉의 철수에게 영희와 결혼은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 프랑스 대사인 김대근의 사위가 되려는 것과 〈학사주점〉의 경일이 “유명해지고 싶었던 말이야.”라고 울부짖는 것은, “타인과 구별된 자신의 우월성을 의식하고 이를 타인으로부터 확인받”고자 하는 ‘우월성의 욕구’가 깔려 있다.<sup>49)</sup> “경쟁사회로 치닫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기회

47)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57쪽.

48)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254쪽.

49) 문성훈, 『호네트 : 병리적 사회 극복을 위한 인정투쟁』,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2, 236쪽.

를 상실한<sup>50)</sup> 자의 마지막 선택은 자살과 폭력 등 비극으로 귀결되고 만다. <학사주점>과 <초우>의 하위계층 청년들이 부자가 되어 제도권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망과도 같다.

#### 4. 결론: '60년대식'<sup>51)</sup> 병적 징후

김소동 감독의 <돈>(1958)은 돈에 의해 농촌사회의 신뢰가 깨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내용을 담은 영화이다. 봉수는 빈농이지만, 욕심 없이 농사일에 매진하며 가정을 돌보는 성실한 가장이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딸 순이의 결혼이 혼수 문제로 미루어지면서 친구 억조의 돈을 탐하게 되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만다. 흥미로운 점은 봉수의 아들 영호가 가진 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그는 제대 후 만난 연인 옥경이 돈을 벌기 위해 과붓집(술집)에 일하게 된 것을 알자, 옥경에게 “돈은 악마와 같은 거야”라면서 돈이 사람의 마을을 빼앗아 가진 못한다고 돈에 집착하지 말 것을 설득한다. 영호는 빈농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돈보다는 정직과 사랑을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나 영호가 가진 신념은 1960년대 중반 대도시를 살아가는 도시빈민에게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영호는 <학사주점>과 <초우>의 경일과 철수처럼, 도시를 경험해 보

50) “인간이 사회적 인정에서 배제된다면, 자신의 욕구와 필요, 이성적인 능력과 개성이 무시당한다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문성훈, 『호네트 : 병리적 사회 극복을 위한 인정투쟁』,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사월의책, 2012, 256쪽.

51) '60년대식'은 1968년 9월 22일 『선데이서울』에 연재된 김승옥의 소설 『60년대식』에서 따온 말이다. 이 소설에서 '60년대식'이란 소비주의와 타락한 인간군상 등 1960년대 자본화로 변질된 한국사회를 '60년대식'이라 칭한다.

지 못한 농촌청년이기예 대도시의 감각으로 돈을 사유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추구할 수 있는 절대적 목표”로 삼았던<sup>52)</sup> 도시의 청년인 경일과 철수에게 영호의 신념은 비현실적인 진부한 집념일 뿐이다.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1966)에서 길녀가 순화동 근처의 신문사 빌딩을 보자마자, 일전에 들었던 “우리나라 첫째가는 부잣집”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길녀는 순간 뉴코리아호텔, 대한항공, 대한일보, 대한화재 등 10층 이상의 건물을 떠올리지만, 그런 부잣집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어느 만큼이나 부자들인지 감을 잡지 못한다. 길녀는 시골 전답으로 쳐서 몇 만 평이나 될지, 통영 근처의 마을 여남을 합친 것만큼이나 될지 떠올리지만, 끝내 셈하지 못한다.<sup>53)</sup> 이 대목은 1960년대 부의 감각이 농촌사회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농촌사회에서 부는 전답, 즉 논과 밭 등 토지의 평수로 환산된다. 농촌의 준비한 전통가옥은 안채, 사랑채, 행랑과 같이 넓게 퍼진 평면구조이다. 농촌에서 성장한 길녀의 셈으로는 입체적으로 높이 솟은 빌딩은 어떠한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다. 그녀의 감각으로 도시의 빌딩은 돈으로 셈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듯, 길녀는 한국사회에서 부자는 전답이 아닌 빌딩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도시를 살아가며 체득한다. 이는 경일이 자살한 고층건물을 짓는 공사장 신과 꿈에 영희와 철수가 나누는 꿈에 대한 대화에서 “돈이 우리 시대의 신”<sup>54)</sup>이라는 왜곡된 신념이 발현된다. 철수는 영희와의 결혼을 꿈꾸면서 “어마어마한 철근 콘크리트 빌딩”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길녀가 그러했듯, 철수에게 고층건물은 부자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성공/출세’를 상징한다.

52)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27쪽.

53)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서울의 만원이다·보고드리웁니다』, 문학사상사, 2006, 38쪽.

54) 게오르그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28쪽.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통질서와 신분계급이 와해되었던 시기, 박정희 정권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출세와 몰락이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신화가 만들어졌고, '성공/출세'의 평등한 기회를 잘 잡으면 벼락출세가 가능하다는 기회주의가 만연했다.<sup>55)</sup> "모든 사람들이 군사정권의 칼날을 피하여 애써 모르는 체 눈을 돌리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을 때,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이 가치관의 일부가 되어 버"<sup>56)</sup>릴 때, 부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발전 이데올로기'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미친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속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범죄, 향락산업, 부동산 투기, 부정부패 등 비윤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들이 정당화"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생활윤리가 되었다."<sup>57)</sup>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추진과 맞물리면서 많은 수의 가난한 농촌의 젊은 남녀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빈민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게 된다. 1960년대 도시빈민은 "농촌의 빈곤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빈곤"을 만들어냈다.<sup>58)</sup>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출세'를 위해 대도시로 모여들

55)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적 출세 욕망』,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260쪽.

56) 박태순·김동춘에 따르면, 4.19 이후, 7.29총선 이후 민족 통일운동에 관여하였던 비교적 진보적인 학생 운동 그룹 내부의 분화가 있었는데, 5.16 직전부터 운동에 소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일부 그룹은 조심스럽게 학생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하였고, 사회적인 진출을 통하여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5.16을 지지하여 일터를 확보하자."라 주장하는 등, 당시 대학생들은 '성공/출세'를 위한 처세의 방법들을 모색 했다. 대다수 빈농의 자식인 이들이 '출세'와 혁명가라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59-218쪽.

57) 신광영, 『경제와 노동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녹두, 1991, 102쪽.

58) 브로니슬라프 게레멕에 따르면,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전통적인 매커니즘"이 붕괴하는데,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접촉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개인적 관계"가 사라지고, "계층 간의 차이와 위계는 더욱더 노동관계를 규정짓기 시작"하는 등 인관관계의 익

었지만, ‘도시빈민’이라는 새로운 레테르가 덧붙여졌을 뿐, ‘빈자’, ‘낙오자’라는 하위계층을 상징하는 레테르는 쉽게 떼어지지 않았다.

〈학사수점〉과 〈초우〉에서 변화하는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문제적으로 비춰진다. 〈학사수점〉의 하숙집 주인인 미망인과 〈초우〉의 식모 영화이다. 이 영화들은 남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조용하는 인물로 그린 반면, 여자들은 그 흐름을 타지 못한,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처리한다. 이는 다분히 1960년대적인 설정이다.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길녀가 고층건물을 떠올리며 “그저 싸늘하게 무서워지기 부터”한 것과 달리, 철수와 경일은 고층건물을 갖고자 한다. 당대 대중들에게 ‘성공/출세’는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sup>59)</sup> 〈학사수점〉에서 하숙집 주인인 미망인과 〈초우〉의 식모 영화는 남자주인공들에게 버림받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는다. 남자주인공들이 그러하듯, 미망인과 식모는 “그들과 가깝고 가장 닮은 사람들”이다.<sup>60)</sup> 그녀들은 남자주인공들이 처한 처지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빈민이기에 그들의 선택을 원망하지 않고, 연민의 감정으로 지켜볼 뿐이다.

거대한 ‘개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개발의 논리에 희의를 품거나 변화에 어리둥절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도태되

---

명성과 사회적 해체 등이 나타난다.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빈곤의 역사』, 이성재 역, 길, 2010, 84-85쪽.

59) 이영미가 〈또순이〉를 분석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영화에서 능력 있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의 조력자 또는 방조자로서만 남아있던 것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대중들의 여성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분석으로는 이영미, 『또순이는 돈을 모아 사장이 되었을까?』, 『인물과사상』 206호, 인물과사상사, 2015.6. 참고.

60) 린 헛트는 18세기 사람들은 소설을 읽고, 그들과 가깝고 가장 닮은 사람들, 직계 가족, 친척, 같은 교구의 신자들, 일반적으로 동일 신분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전언한다. 린 헛트, 『감정의 분출』, 『인권의 발명』, 진진성 역, 돌베개, 2009, 46-48쪽.

어야 했다.<sup>61)</sup> 당시 대중가요 중 트로트에서 지방에 남겨진 자들은 도시화와 개발로 대표되는 사회의 발전에 쫓아가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그려졌고, 고아·기아는 근대화와 도시화의 희망으로부터 밀려난 존재로 담아내기도 했다.<sup>62)</sup> 〈학사주점〉과 〈초우〉에서 미망인과 식모 역시 시대에 조용하지 못한 무능력한 존재로 담아낸다. 이들이 중심이 될 수 없는 식모와 미망인, 즉 결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대화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영화는 그려낸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존재하듯,<sup>63)</sup> 도시빈민인 하위계층 청년들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갈망을 1960년대 병적 징후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종호 감독의 〈학사주점〉과 정진우 감독의 〈초우〉는 재해석되어야 한다.

---

61) 신형기, 『개발의 시대』, 『변화와 운명』, 평민사, 1997, 238~239쪽.

62) 이영미, 『1960년대, 이지리스닝의 창작과 이미지와 엘리지』,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9, 210쪽.

63)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11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영상자료 : 〈학사주점〉, 〈초우〉

### 2. 논문과 단행본

- 김광중 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김동춘, 『근대의 그늘』, 당대, 2000.
- 김승옥, 『무진기행』, 문학동네, 2011.
- 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 노지승, 『대학생과 건달, 김승옥 소설과 청춘 영화에 나타난 1960년대 청년표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2집, 한국현대문학회, 2007, 387-424쪽.
-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大韓公論社, 1976.
- 박길성, 『1960년대 사회변화 연구』, 백산서당, 1999.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 신형기, 『변화와 운명』, 평민사, 1997.
-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테제들』, 사월의책, 2012.
- 이영미, 『또순이는 돈을 모아 사장이 되었을까?』, 『인물과사상』 206호, 인물과사상사, 2015.6, 155-169쪽.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9.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 이재혁, 『한국전쟁과 자본주의 정신』, 『아시아문화』 16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337-371쪽.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1.
- 이호철, 『서울의 만원이다·보고드리웁니다』, 문학사상사, 2006.
- 장규식, 『거대 도시 '서울공화국'의 명암』, 『역사비평』 65호, 역사비평사, 2003, 75-95쪽.
- 전우형, 『1960년 한국영화의 가난 재현의 기술과 정치학 : 영화 〈마부〉의 코미디와 해피엔딩, 그리고 가난의 판타지』, 『동악어문학』 61집, 동악어문학회, 2013, 115-144쪽.
- 주유신 외, 『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한영현, 『1960년대 초 혁명과 역사적 전환기 사회적 실존의 문제-한국 영화에 재현된 서민의 애환과 세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4, 한양대학

교 현대영화연구소, 2012, 223-254쪽.

황병주, 『박정희와 근대적 출세 욕망』, 『역사비평』 89호, 역사비평사, 2009.

게오그르 짐멜,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역, 새물결, 2005.

린 헌트, 『인권의 발명』, 전진성 역, 돌베개, 2009.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빈곤의 역사』, 이성재 역, 길, 2010.

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사월의책, 2011.

프랑코 모레티, 『세상의 이치』, 성은애 역, 문학동네, 2008.

## Abstract

1960s The urban poor and Social Recognition Craving  
- Focusing on 〈Hagsajujeom〉 and 〈Chou(Early Rain)〉

Yeon, Yun-Hui(Dongguk University)

This paper is based upon Director Park, Jong ho 〈Hagsajujeom〉 (1964) and Director Jung, Jin Woo 〈Chou(Early Rain)〉 (1966). Director Park and Jung's work illustrates youth from lower-class who craves social recognition and wants to uphold their life to upper middle class. Their dream was to get away from the poverty which was expressed during the 60's literary works. Those youths from lower-class wandered around even after they graduate from community college. Moreover, these youths are not from a wealthy family, upper class, nor they do not have a decent bachelor degree from a well-known university. Lower-class youths usually do not have a unique characteristic where they can shine their ability. However, those youths would often move and live in the city to have a better life for their future, but in reality, they were not able to get away from the poverty on their own.

The urban poor would often have thought that they would actually live prosperous life through the middle or upper-class women by marrying them and thought that they could be seen as a successful person and be recognized by the others. Moreover, as the traditional order and class identity debacle, the government preached that individual has to try their best to succeed in their lives in order to have equal opportunities. The public also tried and sought to achieve accordingly. Four films were causing a crack in the contradictory character of contemporary society point each in a different way.

In of 〈Hagsajujeom〉 and 〈Chou(Early Rain)〉 clearly showed the failure of those youth especially protagonist who wanted to get married to a rich woman by joining the ranks of the people, but eventually failed. When their plan failed erroneously, that protagonist either committed suicide or turned into violent and abusive to show the society that they are also one's citizen. These resembled as either 'the poor' or 'straggler' that Korean society did not accept them as a citizen. As a result, they

expressed themselves through extreme enmity and anger towards Korean society.

In 〈Hagsajujeom〉 and 〈Early Rain(Chou)〉 showed the other side of youths achieving goals and success towards the wrongful emotional expression. These structure of feelings in 1960 showed pathological signs(carves social recognition ) which were problematic that presented in the films.

(Key Words: 1960s, The urban poor, The lower-class youths, 〈Hagsajujeom(The Bachelor Pub)〉, 〈Chou(Early Rain)〉, Social Recognition.)

논문투고일 : 2016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5월 4일

수정완료일 : 2016년 5월 11일

계재확정일 : 2016년 5월 14일